

먼저 이런 영랑스런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솔직히 아직까지도 제가 이런 상을 받아도 되는지 참 부끄럽고 쩀쩀합니다. 마츠이 야유리씨의 활동과 그 뜻을 기리는 이 상을 받을 만큼 제가 열심히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에게 이런 영랑을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상을 축하해 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제가 이 상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14년 동안 미군에 의해 발생한 범죄들과 피해 그리고 성역으로 취급되는 한미동맹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권과 존엄이 파괴되어 왔던 현실을 고발해온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의 역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는 많은 여성들,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어린 목소리와 그를 이해하고 대변하고자 했던 활동가들의 용기로 채워져 왔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운동본부의 활동가들이 대부분 여성이었다는 것은 이 운동의 어려움과 현실을 대변해 줍니다.

제가 마츠이 야유리씨를 만나게 된 것도 어려운 환경속에서 군사주의에 맞서 활동하는 여성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입니다.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미국-푸에르토리코 여성네트워크의 4번째 국제회의인 서울 회의에서 많은 여성 활동가들과 만나 서로 격려하고 정보와 계획을 나누는 자리에서 마츠이 야유리씨를 뵈게 되었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지만 힘이 넘치는 발판과 제안을 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는 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느라 마츠이 야유리씨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여 어떤 분인지 자세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회의 후에 마츠이 야유리씨가 투병생활을 하게 되고 다시 뵈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은 안타까움과 슬픔을 가집니다.

하지만 저는 정유진씨와 피야우치 아키오씨의 덕분에 마츠이 야유리씨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마츠이 야유리씨의 책이 두 분의 번역으로 한국어로 출판되었기 때문입니다. 1995년 북경 여성회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그 책에는 마츠이 야유리씨가 아시아 지역 여성들을 만나면서 그들에 대해 품었던 많은 애정과 연대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군대의 폭력과 전쟁의 고통을 힘겹게 증언하는 여성들, 개발과 가부장제로 강요된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자치와 공동체를 일구어가는 여성들, 마츠이 야유리씨의 글에는 피해 여성들이 어떻게 자신의 고통을 언어와 행동으로 표현하는지 그리고 저항하는지 자세히 묘사되고 있고 저는 글을 읽으며 그들의 용기와 지혜로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저는 마츠이 야유리씨의 용기에도 존경을 표합니다. 일본이라는 이름으로 아시아에 가해진 폭력을 고발하고 피해 여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했던 마츠이 야유리씨의 글에는 보이지 않는 슬픔과 고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아시아에 혹은 다른 지역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보기 위해 노력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벌어지는 범죄와 폭력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도 턱없이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마츠이 야유리씨의 글은 용기와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츠이 야유리씨를 다시 만나게 해준 정유진씨와 피야우치 아키오씨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여성네트워크를 일구어온 마고 오카자와 레이,

구엔 커크, 유영남, 안익순 이렇게 많은 여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일찌감치 이 활동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60년 미군 주둔역사에서 법치나 폭력, 훈련에 따른 민간인 피해와 환경오염, 미군기지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과 생존권의 침해 등 많은 피해들이 발생해왔습니다. 이런 피해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원인에는 주한미군지위협정(JOJA)에 따라 미군들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과 한국 사회에 뿌리박고 있는 성역화된 한미동맹에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주한미군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나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공격합니다. 성역화된 한미동맹을 위해서 매양리 주민들은 폭격 소음을 참고 살아야 했고 노근리 주민들은 착살의 아픈 기억을 속으로 삭여야만 했으며 폭력과 법치에 시달려온 기지촌 여성들의 고통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미군에게 안전한 휴식과 오락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기지촌이 만들어지고 운영되었지만 이곳에서 발생하는 여성들의 인권 침해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강요됩니다. 윤근이씨 살인사건, 허주연씨 방한 살해사건, 이기순씨 살해사건 등 기지촌 여성들의 죽음앞에 살인미군을 처벌하라는 사회적 여론이 확산되면, 일부에서는 기지촌 여성의 죽음 때문에 한미동맹이 위협받아서 안 된다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때문에 일상적인 폭력이나 강간, 사기 등의 범죄들은 경찰에 신고해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고, 오히려 여성들의 탓으로 돌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경찰에 신고해서 수모를 겪을 바에야 그냥 참는 게 낫다고 포기합니다. 살인사건 중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이 기지촌 여성에 대한 살인사건이 대부분인 것은 바로 이런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경찰들의 소극적 태도, 여론의 무관심, 미군의 비협조는 기지촌의 폭력을 방지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으며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의 오랜 활동 끝에 수십년간 소외받고 침묵해왔던 기지촌의 현실이 드러나고 조금이나마 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정부나 경찰 차원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들에 대한 범죄를 처리하는 데 경찰이나 한국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사회 여론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언론은 극악한 폭력이 아닌 경우에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피해를 입은 여성이 순결한지 또는 얼마나 성실하게 또는 억울하게 살아왔는지 따져 묻게 됩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해자의 처벌을 둘러싼 논쟁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 어떤 여성이었냐는 논쟁도 불러옵니다.

2005년 11월 1일 필리핀 수빅 자유항 인근 클럽에서 벌어진 필리핀 여성에 대한 미해병대원들의 강간사건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바로 피해 여성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성매매 여성이었는데 아닌가, 왜 미군들을 따라 갔는가, 저항하였다면 충분히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다 등등. 가해 미군들에게 대한 기소와 재판 등 처벌 절차를 앞두고 피해 여성에 대한 비난과 논쟁이 신문기사에 실리는 것을 보면서 용기를 내서 증언했던 여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언론에는 미군들로 인해 수빅 지역 경제가 좋

아지는 데 이번 강간사건으로 미군들이 다니지 못해서 경제가 위축되었다는 지역 주민의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강간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악의적인 언론 보도였지만 그 또한 현실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군사동맹과 경제 활성화 앞에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옹호는 무시될 수밖에 없는 건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 미군기지는 군사동맹을 상징하는 표시였으나 최근에는 경제개발의 기회를 여겨줍니다. 평택에 미군기지를 확장, 집중시키면서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들의 집과 땅을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정부는 미군기지를 평택에 확장시키는 데 가한 평택시에 많은 투자를 개발을 허용하고 있어서 평택시장과 시면들 중 일부는 이를 기회로 삼아 미군 기지를 받아들이고 더 많은 특혜를 투자를 끌어오자고 합니다. 매양미 미공군 폭격장이 폐쇄되는 대신 군산 직도 사격장에서 미군들의 폭격훈련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데 지역 시면들과 군산시가 반대하자 결국 한국정부는 3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군산시가 받아들이면서 직도 사격장을 미군이 쓸 수 있도록 시설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명분이 점차 약해지자 이제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 미군기지를 용납하는 명분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미군기지는 법적인 폭력,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곳으로 인식되어 그 자체로서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도시에 있는 기지들이 반환되는 것에 대해 다들 환영하고 있고, 경제적 이득이 없다면 미군기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환영받지 못하는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경제적 이득을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의 그늘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억눌려왔던 것과 같이 경제적 이득으로서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 다시 힘없는 사람들의 희생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미군들이 철수하면 북한이 공격할 것이라는 주장보다 미국 자본들이 한국을 나갈 것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있게 퍼져나가고 있고 미군기지를 용납하는 대신 지역에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고 미군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인 피해는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대부분 개발자들에 의한 것으로 결국 미군기지로 인해 땅을 빼앗기는 농민들이나 폭력에 민감한 여성들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속에 미군기지의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지촌 여성들은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적 입면속에 수십년을 살아왔던 기지촌 지역이 미군기지 특별법으로 인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도저히 현재의 생계비로는 살 수 없는 동네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법에는 기지촌 여성들을 지원하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꾸려온 삶의 방식으로는 터무니없이 올라가고 있는 집값이나 물가를 따라잡을 수 없어 생계가 딱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군기지 공여 또는 반환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법인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삶에 대한 지원은 전혀 고려되지 못한 채 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무엇이고 그로 인해 보호되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성들은 미군이 주둔하는 동안이나 떠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남게 된 것입니다.

미군에 의한 폭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14 년간의 운동본부 활동으로 많은 변화  
들이 생겼습니다. 903# 의 부분 개정이나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 한국의 재  
판권 행사율 증가, 미군기지로부터 피해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보상 등 더디지만 조금씩의 변  
화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마츠이 야유리 상을 받는 것은 바로 이런 활동에 대한 장려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고 연대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여성들의 격려와 연대로 인권의 가치, 평화의 가치가 우리의 일상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서운 힘을 냅시다. 감사합니다.